

‘통도사군자’ 경봉 스님의 설법

(通度寺君子)



참 생명을 찾는 경봉 스님 가르침 김현준 편저 호림 펴냄 6천원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바는 참치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감인세계(堪忍世界), 잡된 것으로 뒤죽박죽 얽혀 있는 회잡(會雜)의 세계로 풀이됩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상은 아무리 큰 복을 누릴지라도 이내하며 살아야 하고, 잡된 일로 시달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맞이하여 스님의 법문집이 나왔다. 스님의 법문을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유형별로 정리하고 엮은 다음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설을 붙였다. 열다섯 살의 한 소년은 어머니를 여의고 삶을 꺾을 줄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세계를 잃어버린 소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잡긴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의문은 커져만 갔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은 따뜻한 세계가 필요했던 한 소년은 1907년 6월 9일 양산 통도사를 찾는다. 그리고 성해화상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께 귀의한다.

스님의 삶도 스님의 말대로였다. 사바는 회잡의 세계이고, 잡된 일로 시달려야 했다.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자 성해화상은 스님에게 통도사의 행정을 맡겼

다. 한참 공부에 불을 붙여가고 있었던 스님으로서 난감한 일이었다. 스님은 공리 끝에 말없이 통도사를 떠난다. 내원사를 거쳐 해인사로, 그리고 직지사 와 금강산 마하연, 안변 석왕사까지, 스님은 스물다섯 되던 1916년에 통도사로 돌아온다. “네 잘못을 내가 잘 알고 있을 테니, 긴 말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는 이 암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토록 참선이 네 원이라니 여기서 죽도록 해 보거라.” 벌이라고 내린 것이 스님에게 복이 되었다. 안양암에서 그는 해담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 스님은 반년 뒤인 1917년 정월 통도사 산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마산 포교사로 임명된다. 1919년 여름에 내원사 주지를 맡아 마산을 떠날 때까지 스님은 불사와 포교에 매진했다. 스님은 1927년 겨울, 극락암에서 화엄산법회를 시작한다. 스님이 법회를 시작하며 좌선 수행하던 중이었다. 바람도 없이 촛불이 춤을 춘다. 스님은 촛불 앞에서 확철대오하며 오도승을 읊는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 하하, 이제 만나 / 혹은 사라졌으니 우당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16세에 출가하여 2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참된 나’를 마침내 찾은 것이다.

책에서 스님은 참치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감인 세계 사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법하고 있다. “사바라고 하여 괴로움과 번뇌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계기에 깨달음의 영적으로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번뇌의 결박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사바세계이기에, 이



경봉 스님은 16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91세로 입적할 때까지 거의 일생을 통도사에서 보냈다.

추추는 촛불 앞에서 20년 만에 경성 설명 듣고 아는 것은 문 밖의 소식

곳 사람들이 해탈과 깨달음을 갈구하게 됩니다.” 스님은 늘 자기개안(自己開眼)에 의한 자기의 육성으로 설법했다. 대부분의 선사들이 즐겨 인용하는 <전 등록>이나 <선문염습> 등의 조사어록보다는 살아있는 독특한 음성으로 못 생명 있는 이의 정신을 일깨

었다. 이러한 스님의 진면목을 보고자 한다면 진리의 세계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 진리의 세계는 정법의 눈이 아니면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스님께서는 도(道), 곧 진리에 대해 항상 말씀 하셨다.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 그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글로써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목격이도존(目擊而道存)이라. 눈이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 책 보면 알아야지, 설명을 듣고 아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그뿐 아니라 입을 열지 않거나 닫지 않는다고 하여도 진리와는 팔만사천리나 멀어진다. 정법안장은 일체의 이름과 모양이 딱 떨어지지 않거니와, 그 어떤 상대적인 말로 설명하려 해도 맞지 않는 것이다.”며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설법한다. 이어서 ‘오도 후에 끈 여덟 번의 꿈’에서는 스님이 오도 후에 끈 여덟 번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도인이 꾸는 꿈은 어떤 것인지, 꿈의 실체는 무엇인지 설법한다. 스님은 ‘도는 어디 있는가’, ‘무상과 꿈과 자성’, ‘참 생명을 찾는 공부’, ‘공부를 잘 하려면’, ‘하하롭게 살아라’, ‘일상에서의 깨우침’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법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회잡의 사바에서 꼭 필요한 설법들이다.

스님은 열여섯에 통도사에서 출가해 91세로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서 입적할 때까지 거의 일생을 통도사에서 살았다. ‘통도사군자(通度寺君子)’라고 불리는 이유다. 스님의 생전 육성이 전해오는 스님의 법문집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a@hyunbul.com

박재완 기자

관음선이야기

빛과 소리

석암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8백원



조계종 관음선원장 석암 스님이 실천하는 마음수행 체험을 엮은 책이다. 책은 석암 스님이 관세음보살 청명 염불을 통한 마음 수행 중에 느꼈던 수행체감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저자에 따르면 관음선은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상(無相)이란 불조의 중지를 있는 조사의 수행법이자, 지혜와 자비를 완성시키는 고차원의 정통수행법이다. 빛으로 마음의 행복과 열반을 느끼고 소리로써 평화를 이끌어내는 관음선은 빛과 소리를 통해 마음 안의 내면과 마음 밖의 우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융합의 수행이고, 이근원통을 바탕으로 하는, 편하고 성취가 빠른 수행법이다.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빛을 바라보고 입으로 부르는 관세음보살 염불소리를 귀로 들으며 마음이 귀로 모이는 것을 이근원통이라 하는데,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맑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빛과 소리 수행의 요체다. 저자는 “염불 공부를 몸과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수행비결이 나의 가풍이다. 한 호흡을 들이쉬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뿜어내고 삼키는 일식탄법(一息吞法)은 번뇌 망상이 생기지 않고 삼매에 들어가는 지름 길이다.”며 오랜 관음염불수행의 노하우를 소개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공헌자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욱	공감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8	해탈장엄론	김보배	운주사
9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10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건강해져라! 행복해져라! 생태공동체가 대안이다”

생태공동체 똑딱 만들기

시골 한의사 외 지음 | 수선재 펴냄 | 1만3천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공동체’가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생태적인 삶과 함께 교육, 문화, 영성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생태공동체선애빌’ 사람들의 이야기와 미국인이 뉴욕에서 한국문화에 기반을 둔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 세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 직장을 떠나 대안적인 교육과 삶을 실천하는 사연, 난대없이 제주 생태마을을 꾸미기에 올인한 비즈니스맨의 인생 고백, 어찌다보니 양치기 소년이 된 환경운동가의 변명 등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우리 이웃들이 진정한 삶을 찾으며 겪는 진솔한 이야기들이다.

진 푸른 눈의 한국인 로어 셰퍼드. “매일 숨 쉰 것밖에 없는데 마법처럼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호흡으로 꿈꾸던 선인들의 의술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다.” -시골 한의사. “별 천체가 대단한 학교인 지구에서 공부는 언제나 진행 중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포근포근 엄마가 되어 줄게. “나의 아이와 그들의 아이가 구분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형제로 자란다.” -이런 대가족을 보셨나요? 아직은 낯선 단어인 생태공동체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근본 원리로 삼는 공동체이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거와 생업, 놀이와 예술, 육아와 교육 등을 같이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이 책을 통해 생태공동체가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해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살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대도시보다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30~40대 직장인이라면 읽어볼 책이다. 박재완 기자



땅과 벗하고 대자연에서 배움을 얻으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람들

일본의 정원 미학

사쿠테이키

다치바나노 도시쓰나 지음 | 김승윤 옮김
연암서가 펴냄 | 2만원



‘정원 만들기’의 고전이다.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사이테이키(作庭記)>. 약 천 년 전 일본 헤이안 시대에 다치바나노 도시쓰나가 썼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책은 헤이안 시대의 사람들이 정원에 얹어 넣었던 의미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의 이미지다. 정원은 아름다운 자연풍의 간결한 묘사였다. 두 번째는 풍수사상이다. 정원은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복락을 주는 장소로 기획되었다. 세 번째는 불교와 관련된다. 정원의 경물들은 불교적 상징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헤이안 시대에 유행했던 복잡한 금기체계가 정원에서도 나타난다. 책은 일본에서 저술된 책이지만 고대 동양세계의 문화가 축적된 책으로 정원 만들기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지침서이다. 박재완 기자

www.hyonjisa.com

개정판

불교서적 베스트 셀러

영혼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 나침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영적 스승이 밝히는 이 시대의 삶의 지침서.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천당, 극락 등과 같은 것인지, 불교의 윤회전생이란 진실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쓴 이 책은 바른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종교 양심서! 이것은 책이 아니라 영혼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 나침반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423쪽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본다 / 무량광 / 건성은 공부의 시작 / '도움' 명언에 대한 일갈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심신을 말한다 / 계율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삼매 / 청명염불 / 소·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안 / 부처님께 공경드릴 수 있다면 천하 / 선공공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들에게 / 영적 스승을 만나라 / 가섭존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 453쪽 / 정가 18,000원

붓다의 설법 / 영신불교 현자사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는 타락 불교다 / 지면, 연기 / (회명경) (법화경)는 방편설이 아니다 / 왜 영신불교인가? / 용신, 인본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 윤회의 존재-인간 영혼의 실제 / 중생의 업장 / 무아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염불이 정법이다 / 대적광전,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열반에 이르러 / 나라가 잘 살고 가정은 평안하기를

· 지은이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출판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 부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부산분원 - T.051-554-5150 · 대전분원 - T.042-525-5325 · 고성분원 - T.033-681-5515 · 서울분원 - T.02-453-5953 · 대구교원 - T.053-654-5557